

## 기혼 남녀의 성 의사소통 유형이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미치는 영향\*

변 금 령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영 호<sup>†</sup>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남녀의 성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이 성생활의 질과 사랑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성별, 연령 및 결혼기간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과 사랑 요소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기혼 남녀 29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생활 만족도, 성행동, 성적 친밀감, 사랑요소를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밝히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성 의사소통은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을 나타낸 유형은 상호교류적 유형이었고, 가장 낮은 수준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을 나타낸 유형은 방관자적 유형이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유형과 수동적 유형은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 주체성 요인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 및 결혼기간에 따라서 각 성 의사소통 유형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가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론으로 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탐색이 가져다주는 임상적 의의와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의사소통, 성생활만족도, 성행동, 성적친밀감, 사랑요소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요약되었습니다.

<sup>†</sup> 교신저자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76, Fax : 02-2164-4252, E-mail : yhlee@catholic.ac.kr

결혼은 인간에게 기쁨과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결혼이 전적으로 행복만을 가져온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부부간의 기대와 욕구가 불일치되고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결혼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 중 하나는 성문제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탓으로 성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으며, 결혼 내에서 부부간의 성생활이 생식 및 재생산 중심이었을 뿐(유영주, 2000; 윤가현, 1993), 성적 즐거움이나 충족감의 관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점점 부부 관계 안에서도 개인의 자기만족이 중요해지고 자신을 실현해 나가려는 기본적인 욕구와 자기중심적 삶의 지향이 존중되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성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부의 성문제도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성이 주요 연구 과제로 부각되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그 결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결혼 만족도 및 부부 적응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라는 견해가 많은 연구(예, Cupach & Comstock, 1990; Dunn, Croft, & Hackett, 2000)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문제는 폭행, 경제적 문제, 원가족 문제, 종교 갈등, 양육 문제 등과 함께 주요 이혼 사유로 지적되기도 한다(김요완, 2007). 실제로 성관계 불만이나 성적 부조화가 부부 갈등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예, 성한기, 손영화, 2007; Ponzetti, Zvonkovic, Cate, & Huston,

1992). 특히 Wheelless, Wheelless 그리고 Baus (1984)는 성 의사소통의 만족 여부가 남녀 관계의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성 의사소통의 불만족은 관계의 종결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성생활은 부부에게 있어 적응적인 관계를 촉구하기도 하는 반면,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성생활의 질이 결혼의 안정성을 가늠케 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전문가들이 부부간의 성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전략이나 지침은 매우 추상적이며 다양하지 못한데, 그 중에서 비교적 실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은 다름 아닌 ‘대화’이다. 결혼 내에서 성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은 적극적인 대화라고 각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성생활 만족도(MacNeil & Byers, 1997; Purnine & Carey, 1997)와 결혼 만족도(우명순, 2008; 이정은, 이영호, 2000; Snyder, 1979)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일찍이 외국의 여러 학자들은 성에 관한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운 성생활 및 결혼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Cupach & Comstock, 1990; Davis, Shaver, Widaman, Vernon, Follette, & Beitz, 2006; Ferroni & Taffe, 1997), 최근 국내의 연구(고정애, 2004; 남영주, 옥선화, 김지애, 2006; 이경옥, 김영희, 2003)에서도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성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성 의사소통 관련 연구들은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히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찾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일부 문헌(박경, 이희숙, 김선경, 고정애, 유춘자, 김혜경, 허정은, 2008; Greenberg, Bruess, & Conklin, 2007)에서 구체적인 성 의사소통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성 의사소통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성적 만족에 서로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많은 증거들(예, Oattes & Offman, 2007; Sprecher & Regan, 2000)이 있는 바, 성 의사소통을 일반 의사소통과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연구를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성 의사소통의 방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문데, 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역기능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성 의사소통의 방식 및 패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성 의사소통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응적인 성생활 및 결혼 생활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성 의사소통의 형태를 밝히려는 노력으로서,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측정하고, 그 변인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성 의사소통 방식을 유형화하며, 각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성생활과 부부 관계의 차이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부부치료 및 부부 문제와 관련된 임상 장면에서 성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성 의사소통

성 의사소통(sexual communication)이란 부부

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성생활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되고 교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만족도에 기여하는 성 의사소통의 기능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일반적인 의사소통(general communication)이 성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MacNeil과 Byers(1997)는 이성교제 중인 남성과 여성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때 성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Purnine과 Carey(1997)는 결혼 또는 동거 중인 커플들의 성적 적응(sexual adjustment)에 미치는 대인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성적 적응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성 의사소통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Sprecher와 Regan(2000)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에 관해 의사소통할 경우에는 직접적이지 못하고 종종 간접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Oattes와 Offman(2007)도 일반 의사소통과 성 의사소통은 관련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리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 의사소통은 불안과 더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Byers와 Demmons(1999)의 연구에서도 성적 내용이 아닌 의사소통(nonsexual communication)과 성 의사소통은 다르며, 성적 만족에 서로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Wheelless 등(1984)도 일반 의사소통과 성 의사소통은 관계의 발달 단계마다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 직유적, 개방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 사적이며 은폐되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남영주 등, 2006)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성에 대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일반 의사소통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성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성 의사소통이 일반 의사소통보다 성 만족도를 더 적절히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성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변인

성 의사소통 포함되는 변인으로 성적 자기노출,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다.

#### 성적 자기노출

Byers와 Demmons(1999)는 부부간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나 성적인 선호, 기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을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부 관계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때 파트너와의 성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선호되는 부분이나 꺼려지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 성 의사소통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성태도

성태도(sexual attitude)는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김용자, 이해경, 1995) 등 성에 대한 개인의 내적 신념의 표현으로 성만족, 성정체감, 성활동성과 성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박영숙, 김윤미, 1997). 이홍식, 김진학, 유계준, 이호영(1987)은 기혼 남녀의 성기능 장애의 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여 성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하기 보다는 숨기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지식 방법을 습득하거나 성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 또한 성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태도의 유형이 개방적인지 또는 보수적인지에 따라 성 의사소통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성태도는 성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성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홍식 등(1987)은 성태도가 긍정적일 때 성적 만족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영숙과 김윤미(1997), 이인숙과 문정순(2000)의 연구에서도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자기주장성

성적 자기주장성(sexual assertiveness)은 타인의 성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며(Patricia, Kathryn, Lisa, Laura, Diane, Pamela, & Gary, 1997),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위이다(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Hurlbert와 Whittaker(1991)는 성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

렇지 않은 여성보다 성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면서, 수동적 태도보다는 남녀가 성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갖는 것이 성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성 주체성

Catania, McDermott와 Wood(1984)는 성 주체성(sexual regulation)을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통제 소재의 내외 여부로 보았다. 이를 참고로 하여 남영주(2003)는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상대방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문홍세(1989)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자율적이지 못할 때에 성적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통제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consenting to unwanted sex)는 경험적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서, 한 사람이 성관계를 원치 않거나 성 욕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요나 강압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트너의 성관계 제의에 기꺼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O'Sullivan & Allgeier, 1998). 이것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예를 들어, 성폭력)와는 다르다. 성관계 합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합의가 종종 불분명하게(ambiguous)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불분명성은 합의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Muehlenhard(1995, 1996)는 성관계 합의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때는 분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는 다양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긍정적 결과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한 사람이 성관계 후 보통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O'Sullivan & Allgeier, 1998). O'Sullivan과 Allgeier(1998)는 파트너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관계에서 친밀감(intimacy)을 촉진할 수 있으며, 관계의 불화(relational discord)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데, Impett, Peplau와 Gable(2003)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에이즈나性病 감염의 연관된 위험한 성행동(risky sexu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고, 성관계에서 희생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sexual victimization)과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는 정서적 불편감(emotional discomfort)과 부정적인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와 관련될 수 있다(O'Sullivan & Allgeier, 1998). 따라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Impett 등(2003)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파트너에게 애정과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성 의사소통의 유형

지금까지 성 의사소통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 즉, 성적 자기노출,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성생활 만족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성 의사소통 관련 연구들은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히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찾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문헌(박경 등, 2008; Greenberg, Bruess, & Conklin, 2007)에서 성 의사소통의 내용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접근된 바가 없다. 즉, 성 의사소통이 성문제의 실제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성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오히려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의 내용만큼이나 의사소통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가족치료 모델 중 의사소통 가족치료는 의사소통의 내용보다 형태와 과정에 초점을 둔다(김영애, 2004). 성 의사소통 관련 연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연구자가 있는데, Cupach와 Comstock(1990)은 앞으로 성 의사소통의 내용과 더불어 과정(process)에도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유용한 성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특별한(specific) 의사소통 기술(skill)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손영미(2005)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쉽지 않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보수적인 성문화에서 기인한 성신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의사소통방식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즉, 풍요로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형태이다. 손영미(2005)는 기혼자 12명에게 실시한 면접을 통해 성적 자기의 표현 방식<sup>1)</sup>을 몇 가지로 유형화시켰는데, 첫 번째 성적 자기의 표현 방식은 서로의 성적 자기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유형으로, 언어적 표현이 아닌 신체적인 반응들을 통해 성생활을 조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적 자기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형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주로 이에 속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성적 자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배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서로의 성적 자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해왔던 것 때문에 유발되는 성생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서로의 성적 자기를 찾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치루거나 이미 둘만의 방식을 만든 유형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부부 상호 간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면접대상자들이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지 않았다는 연구자의 설명처럼 이러한 구분은 다소 모호하고 유동적이어서 의사소통 방식을 유형화하는 의미를 상실할 수 있고, 또한 성 의사소통을 성적 자기의 표현으로만 국한시켜 너무 협소하

1) 손영미(2005) 연구의 성적 자기의 표현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적 자기노출(sexual self-disclosure)과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게 본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성 의사소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Brenton(1972)은 그의 저서를 통해 미네아폴리스의 가정·아동 문제 연구소에서 개설했던 부부들을 위한 의사소통 교양강좌 하나를 소개했다. 성처럼 민감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이 잘 다루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강좌는 성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강좌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 의사소통의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습적인 유형(conventional style)이다. 이는 피상적인 대화 형태로 사실에 관한 경직된 발언과 일상적인 감정만을 간단하게 표현하며, 성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한다. 두 번째는 독단적인 유형(assertive style)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자세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이다. 이는 독재적이고 공격적인 대화로 대개는 논쟁으로 번지게 된다. 세 번째는 방관자적인 유형(speculative style)으로 가장 비생산적이고 악의적인 대화 형태다. 이는 자신을 철저히 방관자적인 입장에 놓고 자신의 의견을 좀처럼 먼저 꺼내지 않으며, 심각한 주제를 쉽게 거론하고 책임감 없는 자세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매우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에 직면하는 유형(confronting style)으로 방관자적인 유형과 정반대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발생하는 문제를 직시하고 매사에 책임 있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바탕으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감한 대화도 피하지 않는 유형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화 태도다. Brenton(1972)이 수록한 이

러한 내용은 성 의사소통을 유형화한 최초의 사례인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원자료마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처음으로 개념화하고 이론의 정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의사소통이 이와 유사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양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여 성 의사소통의 네 가지 형태를 경험적으로 구현해내고자 한다.

### 성생활의 질

본 연구에서는 성생활의 질을 가늠하는 요소로서, 성생활 만족도, 성행동, 성적 친밀감을 선택하였다. 즉, 성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 성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성행위, 그리고 성생활에서 느끼는 신뢰 및 정서적 측면의 측정을 통해 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성생활 만족도

기존의 여러 연구들(고정애, 2004; 남영주 등, 2006; 이경옥, 김영희, 2003; Cupach & Comstock, 1990; Ferroni & Taffe, 1997)은 성 만족도에 대한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혀왔으며, 제한된 성 의사소통(inhibited sexual communication)은 성적 불만족(sexual dissatisfaction)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Davis et al., 2006). 또한 성 의사소통은 성적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되었으며(Byers & Demmons, 1999), 결혼의 질(남영주 등, 2006)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행동

성행동이란 이성간의 신체적 접촉을 말한다. 성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Vener & Stewart, 1974). 성행동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 청소년이나 미혼남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부부간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행동 중에서 성관계 빈도, 전회를 포함한 성관계 시간, 아내의 오르가슴 빈도 등이 아내와 남편의 성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ou, 1993).

### 성적 친밀감

부부 친밀감 연구의 한 측면에서는 친밀감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는데(이경희, 1995), 성치료 분야에서는 Hetherington과 Soeken(1990)이 부부 친밀감의 핵심적인 요소가 성적 친밀감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였다. 한편, 이희숙(2008)은 최근 부부 관계는 전통적인 부부 역할 수행보다는 친밀감을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Giddens(1996)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친밀감은 상호성, 자기개방, 섹슈얼리티, 자율성, 수용성, 나눔, 믿음, 협력, 지적인 친밀감, 감정적 가까움, 신체적 가까움 등의 요소가 포함되므로(Merves-Okin, Amidon, & Bernt, 1991; Rabin, 1998),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성교 횟수나 성행위의 빈도보다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에 의해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져야 만족한 상태(Schnarch, 1997)가 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렇듯 성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성적 친밀감(sexual intimacy)이라는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경희(1995)는 성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서 성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assey(1999)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누군가와 성적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적 친밀감을 정의하였다.

또한 성적 친밀감의 형성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며 성적 친밀감의 발달과 유지에는 신뢰와 애정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수용하면서 상대방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Olson, 1975; Prager, 1995). 즉, 성적 친밀감은 부부 사이에서 경험하는 성적 의미의 표현과 행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롯되는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며(이희숙, 2008), 성적 친밀감은 정서적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소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정서표현성과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친밀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의 성생활에서 느끼는 성적 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질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생활에서의 성은 친밀감의 한 부분이며 성적친밀감은 단순히 특정 성행동이라기보다 헌신과 조화와 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Waring, Tillman, Frelick, Russell, & Weisz, 1980).

### 사랑 요소

사랑의 삼각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친밀감(intimacy)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closeness), 결합(connectedness), 유대감(bondedness)의 감정이다. 두 번째는 열정(passion)으로 낭만, 신체적 매력, 성적 절정감을 유발하는 충동(drive)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심/책임감(decision/commitment)으로 단기적 측면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며, 장기적인 측면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는 책임감을 말한다. 한 사람이 경험하는 사랑의 크기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절대적인 강도(strength)에 달려있으며, 사랑의 종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상대적인 강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 형태로 나타난다(Sternberg, 1986). 이러한 사랑 요소들은 성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친밀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Hunt(1974; 서선영, 2001에서 재인용)는 부부의 성관계는 감정적으로 친밀한 경우에 더 만족스러우며 특히 부인의 성만족과 감정적 친밀감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Patton과 Waring(1985)은 성생활과 부부간의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과 친밀감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배우자 간의 정서적 친밀감은 성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Kurt와 Mahzad(1998)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간의 책임감에 대한 다른 관점-남성의 경우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여성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책임과 충성을 보이는 파트너를 찾는데 관심을 두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성

관계의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성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는 남녀간의 차이도 성생활의 만족이 달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랑과 성생활 관계에 대한 196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 17%와 여성 29%가 사랑이 결여된 성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여겼다. 그러나 198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남성 29%와 여성 44%가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비율의 증가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의 요소가 성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유형주, 1999; 서선영, 2001에서 재인용).

###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성 의사소통에 대한 이제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부부간에 성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상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의 측정을 통해서 성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분류된 각 유형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볼 것이며, 이러한 성 의사소통의 유형이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Brenton(1972)이 설명한 성 의사소통 유형이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 의사소통 방식을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 밝힌 성 의사소통 유형이 Brenton(1972)이 소개했던 유형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성 의사소통의 각 유형들이 기혼 남녀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기혼 남녀 39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에서 316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와 성기능장애 치료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4부를 제외한 총 29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 및 성생활에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 성적 자기노출 척도

성적 자기노출 척도(The Measure of Sexual Self-Disclosure)는 Byers와 Demmons(1999)가 개발한 12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우선 저자에게 척도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일차로 번안하였고,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한인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한 뒤, 전문 번역가로부터 최종 감수를 받았다. 문항은 키스, 애무, 구강성교, 삽입, 성적 다양성에 관한 선호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호하는지를 묻는 6문항과 선호하지 않는지를 묻는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배우자와의 키스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로 배우자에게 표현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나는 배우자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에게 막연하게 표현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 나 자신의 사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는다’, ‘나는 배우자에게 전부 이야기하며, 배우자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안다’와 같은 보기 중에서 한 가지 응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성태도 척도

성태도 척도는 긍정적 성태도와 개방적 성태도를 각각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했다. 긍정적 성태도는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하고, 장순복(1989)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번안·수정한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기를 만져주는 것은 성교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 ‘부부간에 다양한 성경험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 봐야 한다’와 같은 성태도를 묻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였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혼과 관련된 특성 및 성생활에 관련된 특성

| 변인        | 빈도(명) | 퍼센트(%) | 변인               | 빈도(명) | 퍼센트(%) |
|-----------|-------|--------|------------------|-------|--------|
| <b>성별</b> |       |        | <b>결혼기간</b>      |       |        |
| 남자        | 140   | 47.5   | 1년 이하            | 15    | 5.1    |
| 여자        | 155   | 52.5   | 1 ~ 5년           | 78    | 26.4   |
| <b>연령</b> |       |        | 5 ~ 10년          | 72    | 24.4   |
| 20대       | 29    | 9.8    | 10 ~ 15년         | 54    | 18.3   |
| 30대       | 154   | 52.2   | 15 ~ 20년         | 46    | 15.6   |
| 40대       | 112   | 38.0   | 20 ~ 25년         | 27    | 9.2    |
| <b>학력</b> |       |        | 25년 이상           | 3     | 1.0    |
| 고졸        | 82    | 28.0   | <b>성관계 횟수</b>    |       |        |
| 대재        | 13    | 4.4    | 1주일 3 ~ 4회       | 27    | 9.2    |
| 대졸        | 156   | 53.2   | 1주일 1 ~ 2회       | 108   | 36.9   |
| 대학원 이상    | 40    | 13.7   | 한 달에 2 ~ 3회      | 99    | 33.8   |
| 기타        | 2     | 0.7    | 성관계 하지 않음        | 9     | 3.1    |
| <b>직업</b> |       |        | <b>성에 대한 흥미</b>  |       |        |
| 학생        | 7     | 2.4    | 매우 높다            | 27    | 9.2    |
| 생산직       | 7     | 2.4    | 높은 편이다           | 77    | 26.1   |
| 서비스       | 32    | 10.8   | 중간이다             | 126   | 42.7   |
| 자영업       | 29    | 9.8    | 낮은 편이다           | 51    | 17.3   |
| 사무직       | 66    | 22.4   | 매우 낮다            | 14    | 4.7    |
| 전문직       | 49    | 16.6   | <b>성 의사소통 의지</b> |       |        |
| 공무원       | 18    | 6.1    | 항상 기꺼이 참여        | 128   | 43.4   |
| 주부        | 57    | 19.3   | 중요한 부분만 참여       | 121   | 41.0   |
| 무직        | 4     | 1.4    | 되도록 안 하려함        | 38    | 12.9   |
| 기타        | 26    | 8.8    | 전혀 안 하려함         | 7     | 2.4    |

개방적 성태도는 Hudson과 Murphy(1990)가 개발한 도구를 이경옥(2003)이 번안·수정한 Sexual Attitude Scale(SAS)을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요즘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너무 많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성에 집착한다’와

같은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성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다.

### 성적 자기주장 척도

성적 자기주장 척도(Sexual Assertiveness Scale)는 Patricia 등(1997)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최명현(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교에서 임신과 성병 예방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차원인 임신과 성병 예방의 차원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시키고 원하는 성적 접촉 주장 요인인 6문항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 거절 요인 6문항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성적 접촉 거절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묻기 어려운 6번 문항 ‘여성이 애무를 요구하기 보다는 남자가 해주길 기다려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나는 애무해달라고 배우자에게 표현한다’, ‘원하는 부위에 애무해주길 기다린다’ 등의 성적 접촉 주장 요인 5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성 주체성 척도

성 주체성에 해당하는 척도로 Catania(1992)가 개발하고 남영주(2003)가 번안한 성 주체성 척도(Dyadic Sexual Regulation Scale: D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특정한 부부 관계에서 성과 관련된 상황에 얼마나 자신의 통제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지를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종종 성관계를 내가 먼저 시작한다’, ‘나는 때에 따라 배우자가 주도적이고 내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좋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크고, 반대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견에 따르는 부분이 많거나 자신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4였다.

###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합의할 가능성 척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합의할 가능성(Likelihood of Consenting to Unwanted Sex) 척도는 Rosenfeld(2004)가 Basile(1999)의 연구에 실려 있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개발한 문항으로, 총 12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우선 저자에게 척도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일차로 번안하였고,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한인 3인에게 검토를 의뢰한 뒤, 전문 번역가로부터 최종 감수를 받았다. 이 척도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하는데, 당신은 성관계를 할 기분이 아니라면(성관계를 할 수는 있으나 기분이 안 좋아서 썩 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와 같이 배우자가 성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보일 때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5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정도를 Likert식 7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성생활 만족 질문지

성생활 만족도의 측정에는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한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장순복(1989)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번안·수정한 성생활 만족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는 본래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의 문항과 중복이 되는 1문항을 삭제하고 ‘나는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다’ 등의 총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성 자기감찰 척도

성행동은 Libman, Spector, Binik, Brender와 Fichten(1983)이 개발한 Jewish General Hospital (JGH) 성 자기감찰 척도(Sexual Self-Monitoring Form)의 성행동의 빈도와 선호도를 묻는 문항 중에서 이운미(2008)가 부부가 함께 하는 성행동을 발췌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키스’, ‘가슴애무(어루만짐)’ 등의 문항에 대해 ‘매우 즐겁지 않다’부터 ‘매우 즐겁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는 방식으로, 13개의 문항 중 문항 내용이 모호하여 응답하기 어려운 13번 문항 ‘기타 (다른 성행동)’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행동에 표시한 문항이 많을수록 성행동이 다양한 것을 의미하며, 표시한 성행동의 즐거운 정도를 평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는 성행동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성적 친밀감 척도

성적 친밀감은 Massey(1999)가 개발하고 이

희숙(2008)이 번안한 성적 친밀감 척도(Sexual Intimacy Scale)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배우자와의 좋은 성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나에게 충만감을 준다’ 등이 포함된 총 30문항의 Likert식 7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였다.

### Sternberg 사랑의 삼각 척도

Sternberg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 이론의 세 가지 구성요소 즉, 친밀감, 열정, 책임감은 Sternberg(1986)가 개발하고, 양미선(2009)이 수정한 Sternberg 사랑의 삼각 척도(The Sternberg Triangular Love Scale)를 사용하였다. ‘나는 배우자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배우자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등이 포함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친밀감 .95, 열정 .94, 책임감 .96으로 나타났다.

### 연구 절차

응답 내용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선별된 설문지 295부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은 첫째, 여러 변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개인차를 탐색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동질적인 하위집단들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해 군집을 분류

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해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 따른 군집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군집을 결정한 후 각 군집의 특성에 알맞게 군집을 명명하여 성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성 의사소통의 하위 유형과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성생활 만족도, 성행동, 성적 친밀감, 사랑 요소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대한 성 의사소통의 하위유형과 성별, 연령 및 결혼기간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성 의사소통의 유형화

성 의사소통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성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변인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뒤, 각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과는 달리 개체가 어느 한 군집에만 속하도록 하는 상호배반적 군집방법이다. 이 방법은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고, 각 개체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대용량 데이터의 군집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개수를 3개에서 6개 사이로 지정하여 처음 생성된 군집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하고 10회 반복 계산하여 사례들의 소속 군집을 정하였으며, 이처럼 군집의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수행된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면서 분석을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Brenton (1972)이 소개한 네 가지 성 의사소통 유형과 유사한 특성들을 가진 네 개의 군집이 확인되었으며,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도 네 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군집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개의 군집과 여섯 개의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각 군집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군집을 본 연구에서 분석될 최종 군집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도식화한 형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별로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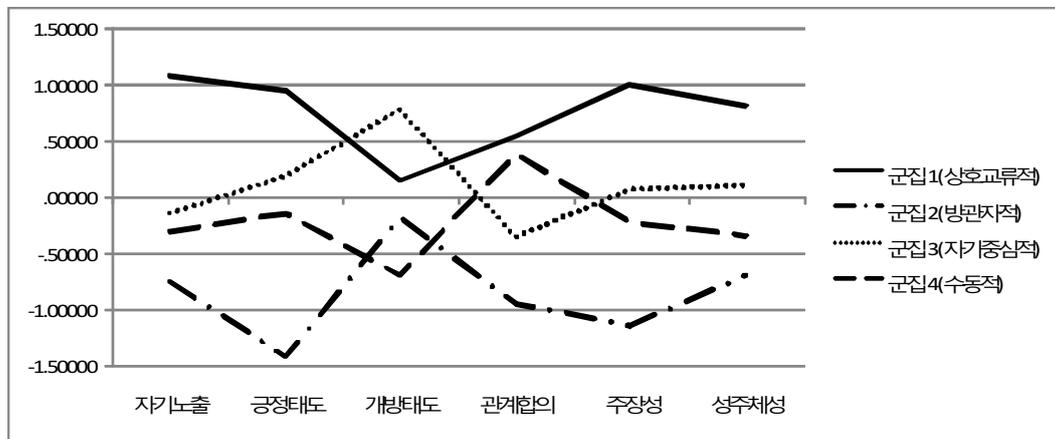
먼저 군집 1은 높은 수준의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 성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과 개방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성태도를 보인 집단으로, 이들은 별다른 성적 혼란이나 문제를 나타내지 않고,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와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교류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2. 군집별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비교

|         | 군집1<br>(n=70) | 군집2<br>(n=48) | 군집3<br>(n=82) | 군집4<br>(n=95) | F(3, 291) | 사후검증          |
|---------|---------------|---------------|---------------|---------------|-----------|---------------|
| 성적 자기노출 | 3.22(0.65)    | 1.73(0.65)    | 2.22(0.63)    | 2.10(0.63)    | 65.02***  | 1 > 3, 4 > 2  |
| 긍정적 성태도 | 32.34(3.28)   | 19.69(4.26)   | 28.22(3.52)   | 26.49(3.35)   | 124.56*** | 1 > 3 > 4 > 2 |
| 개방적 성태도 | 31.13(5.26)   | 29.40(4.61)   | 34.38(3.93)   | 26.75(3.36)   | 49.16***  | 3 > 1, 2 > 4  |
| 성관계 합의  | 23.20(5.83)   | 13.93(4.63)   | 17.65(5.15)   | 22.25(5.06)   | 41.82***  | 1, 4 > 3 > 2  |
| 성적 자기주장 | 20.79(3.02)   | 10.65(3.49)   | 16.41(3.83)   | 15.03(3.44)   | 85.30***  | 1 > 3, 4 > 2  |
| 성주체성    | 46.58(7.14)   | 35.01(7.67)   | 41.09(5.74)   | 37.67(6.15)   | 37.29***  | 1 > 3 > 4 > 2 |

주. \*\*\*  $p < .001$

사후검증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만 부등호로 제시하였음( $p < .05$ ).



주. 자기노출=성적 자기노출, 긍정태도=긍정적 성태도, 관계합의=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주장성=성적 자기주장성, 개방태도=개방적 성태도

그림 1. 성 의사소통 하위 유형 군집 프로파일

군집 2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 성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적 자기주장성, 성적 주체성을 보였으며, 성태도의 개방적인 면에 있어서 중립적인 수준을 나타낸 집단으로, 이들의 성 의사소통은 양적으로 매우 저하된 형태를 띠는 점에서 '방관자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가장 개방적인 성태도를 취하고, 군집 4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성 주체성을 보인 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수준은 낮은 집단으로, 이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 유형'이라 명명

표 3. 성 의사소통 하위 유형의 특징

|           | 특징   |
|-----------|--|
| 상호 교류적 유형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와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모두 높음   |
| 방관자적 유형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와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모두 낮음   |
| 자기 중심적 유형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는 높으나,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는 낮음 |
| 수동적 유형    |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정도는 낮으나, 파트너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는 높음 |

하였다.

군집 4는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의 수준은 낮은 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서만 높은 수준을 나타낸 집단으로, 이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보다 파트너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 ‘수동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상호교류적 유형과 방관자적 유형은 개방적 성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에서 서로 대조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며, 자기중심적 유형과 수동적 유형은 성적 자기노출과 성적 자기주장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유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 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의 차이 검증

성 의사소통의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과 사랑요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군집들 간의 비교를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하

였다. 그 결과, 각 유형들은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사랑 요소 중 친밀감은 상호교류적 유형( $M=52.06$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관자적 유형( $M=43.79$ ), 자기중심적 유형( $M=47.11$ ), 수동적 유형( $M=45.67$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3, 291) = 11.34, p < .001$ . 열정에서는 상호교류적 유형( $M=46.67$ )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기중심적 유형( $M=40.15$ )과 수동적 유형( $M=40.33$ )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방관자적 유형( $M=35.61$ )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F(3, 291) = 14.81, p < .001$ . 그리고 책임감에서도 열정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F(3, 291) = 14.09, p < .001$ .

성생활의 질 요인 중에서 성생활 만족도는 상호교류적 유형( $M=35.24$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중심적 유형( $M=30.31$ )과 수동적 유형( $M=30.25$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관자적 유형( $M=25.56$ )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F(3, 291) = 35.54,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성행동에서도 나타났으며,  $F(3, 291) = 39.67, p < .001$ , 성적 친밀감에서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F(3, 291) = 54.62, p < .001$ .

표 4. 군집별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의 평균(표준편차) 비교

|               |   | 상호<br>교류적<br>유형<br>(군집1)<br>n=70 | 방관자적<br>유형<br>(군집2)<br>n=48 | 자기<br>중심적<br>유형<br>(군집3)<br>n=82 | 수동적<br>유형<br>(군집4)<br>n=95 | F<br>(3, 291) | 사후<br>검증     |
|---------------|---|----------------------------------|-----------------------------|----------------------------------|----------------------------|---------------|--------------|
| 사랑<br>요소      | a | 52.06(5.82)                      | 43.79(10.10)                | 47.11(9.11)                      | 45.67(8.59)                | 11.34***      | 1 > 2, 3, 4  |
|               | b | 46.67(7.63)                      | 35.61(11.43)                | 40.15(9.75)                      | 40.33(8.45)                | 14.81***      | 1 > 3, 4 > 2 |
|               | c | 52.04(7.57)                      | 41.10(10.48)                | 45.90(9.73)                      | 46.42(9.07)                | 14.09***      | 1 > 3, 4 > 2 |
| 성<br>생활의<br>질 | d | 35.24(4.35)                      | 25.56(6.02)                 | 30.31(5.49)                      | 30.25(4.66)                | 35.54***      | 1 > 3, 4 > 2 |
|               | e | 37.04(5.92)                      | 23.63(7.50)                 | 31.80(6.72)                      | 29.99(6.74)                | 39.67***      | 1 > 3, 4 > 2 |
|               | f | 167.55(18.65)                    | 114.41(27.42)               | 145.87(23.83)                    | 141.12(20.64)              | 54.62***      | 1 > 3, 4 > 2 |

주. \*\*\*  $p < .001$

사후검증은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만 부등호로 제시하였음( $p < .05$ ).

a=친밀감, b=열정, c=책임감, d=성생활 만족도, e=성행동, f=성적 친밀감

1=상호교류적 유형, 2=방관자적 유형, 3=자기중심적 유형, 4=수동적 유형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이 모두 다른 양상의 성생활의 질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과 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 차이 검증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 요소 중 친밀감에서 성 의사소통 유형의 주효과,  $F(3, 287) = 7.02, p < .001$ , 그리고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3, 287) = 3.58, p < .05$ . 반면, 성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287) = 3.01, n.s.$  성 의사소통 유형은 앞서 밝힌 결과와 같이 상호교류적 유형이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

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에 비해 높은 친밀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림 2에 제시된 친밀감에서의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 순으로 친밀감이 낮아졌는데, 여성은 상호교류적 유형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보인 반면, 그 다음은 수동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순이었고, 방관자적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친밀감을 나타냈다. 즉 여성은 방관자적 유형이 될 때 친밀감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은 수동적 유형이 될 때 친밀감이 가장 낮았다.

또한 사랑 요소 중 열정에서는 성별의 주효과,  $F(1, 287) = 4.98, p < .05$ , 성 의사소통 유형의 주효과,  $F(3, 287) = 7.01, p < .001$ ,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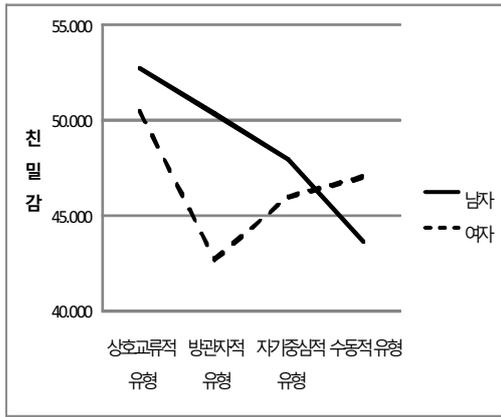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친밀감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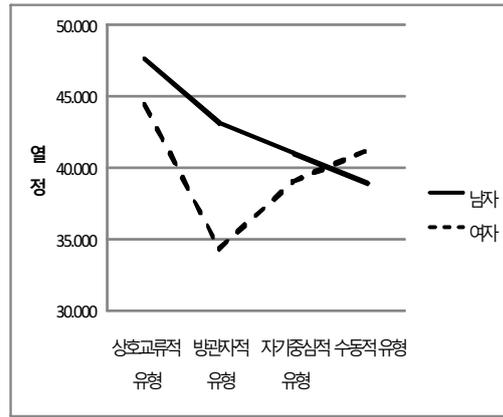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열정의 차이

287) = 2.87,  $p < .05$ . 즉, 열정 면에서 성 의사소통 유형 중 상호교류적 유형이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림 3에 제시된 열정에서의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 순으로 열정이 낮아졌는데, 여성은 상호교류적 유형에서는 남성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열정을 보인 반면, 그 다음은 수동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순이었고, 방관자적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열정을 나타냈다. 즉, 친밀감과 동일하게 여성은 방관자적 유형이 될 때 열정이 가장 낮았으며, 남성은 수동적 유형이 될 때 열정이 가장 낮았다.

한편, 책임감은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의 주효과만 나타났고,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 의사소통 유형은 상호교류적 유형이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에 비해 높은 책임감을 보였으며,  $F(3, 287) = 6.85, p < .001$ , 성별에서는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높은 책임감을 보였다,  $F(1, 287) = 4.53, p < .05$ .

그리고 성생활의 질 요인인 성생활 만족도, 성행동, 성적 친밀감에서는 성 의사소통 유형의 주효과만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 의사소통 유형과 성별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성별에 의한 요인을 통제된 후 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의 차이를 재검증하였다. 이에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의한 요인을 제거한 순수한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의 차이는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및 결혼기간과 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분석은 20대 피험자의 수가 30대, 40대 피험자에 비하여 너무 적은 관계로,

표 5.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성 의사소통 유형별 사랑 요소 및 성생활의 질

|         |         | 성 의사소통 유형 |          |
|---------|---------|-----------|----------|
|         |         | <i>df</i> | <i>F</i> |
| 사랑 요소   | 친밀감     | (3, 290)  | 9.40***  |
|         | 열정      | (3, 290)  | 11.68*** |
|         | 책임감     | (3, 290)  | 10.40*** |
| 성 생활의 질 | 성생활 만족도 | (3, 290)  | 34.34*** |
|         | 성행동     | (3, 290)  | 31.98*** |
|         | 성적 친밀감  | (3, 290)  | 51.96*** |

주. \*\*\**p*<.001

39세 이하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사랑 요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 요소의 하위변인인 친밀감,  $F(1, 287) = 8.31, p < .01$ , 열정,  $F(1, 287) = 4.48, p < .05$ , 및 책임감,  $F(1, 287) = 4.29, p < .05$ , 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성 의사소통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9세 이하 집단이 40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을 나타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분석은 결혼기간 1개월에서 10년 사이의 결혼단기집단, 10년 1개월에서 20년 사이의 결혼중기집단, 20년 1개월 이상의 결혼장기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 요소 중 친밀감에서 결혼기간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2, 283) = 3.36, p < .05$ , 성 의사소통 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단기 집단은 결혼중기 집단과 결혼장기 집단에 비해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중기 집단과 결혼장기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성별 및 연령별 성 의사소통의 유형의 분포

성별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표 6), 남성은 상호교류적 유형이 49명(35%), 방관자적 유형이 7명(5%), 자기중심적 유형이 46명(32.86%), 수동적 유형이 38명(27.14%)으로, 방관자적 유형이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세 유형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여성은 상호교류적 유형이 21명(13.55%), 방관자적 유형이 41명(26.45%), 자기중심적 유형이 36명(23.23%), 수동적 유형이 57명(36.77%)으로, 수동적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상호교류적 유형이 가장 적었다(그림 4).

한편, 연령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표 6), 39세 이하 집단에서는 상호교류적 유형이 47명(25.68%), 방관자적 유형이 27명(14.75%), 자기중심적 유형이 56명(30.6%), 수동적 유형이 53명(28.96%)으로, 방관자적 유형이 가장 적었다. 또한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상호교류적 유형이 23명(20.54%), 방관자적 유형이 21명(18.75%), 자기중심적 유형이 26명(23.21%), 수동적 유형이 42명(37.5%)으로, 수동적 유형이 가장 많았다(그림 5).

표 6. 성별 및 연령별 성 의사소통의 유형의 분포

|          | 남성  |        | 여성  |        | 39세이하 |        | 40세이상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상호교류적 유형 | 49  | 35     | 21  | 13.55  | 47    | 25.68  | 23    | 20.54  |
| 방관자적 유형  | 7   | 5      | 41  | 26.45  | 27    | 14.75  | 21    | 18.75  |
| 자기중심적 유형 | 46  | 32.86  | 36  | 23.23  | 56    | 30.60  | 26    | 23.21  |
| 수동적 유형   | 38  | 27.14  | 57  | 36.77  | 53    | 28.96  | 42    | 37.5   |
| 합계       | 140 |        | 155 |        | 183   |        | 11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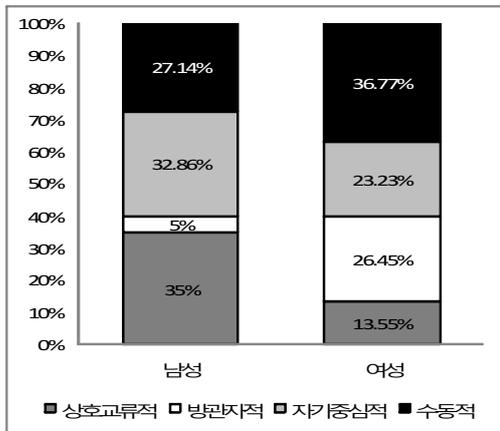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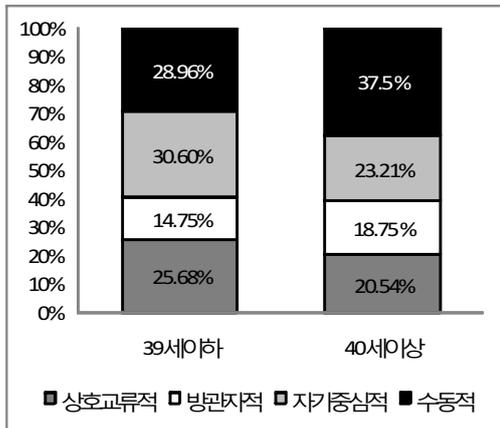


그림 5. 연령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밝히기 위해 성 의사소통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로써 얻어진 각 군집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며, 성생활의 질과 사랑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성 의사소통의 유형화:**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

성 의사소통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 즉,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측정 후 군집분석을 통해 성 의사소통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군집들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군집별로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한 결과 각각 명확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군집의 명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집 1은 높은 수준의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 성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과 보통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를 보였다. 즉, 군집 1에 속한 사람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매우 솔직하게 노출하고, 높은 수준의 긍정적 성태도와 보통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를 취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라 할지라도 적절히 합의하고, 성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며, 성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와 상대가 원하는 바를 동등한 수준으로 적절히 조율한다는 점에서 ‘상호교류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낮은 수준의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 성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성적 자기주장성, 성적 주체성을 보였으며, 성태도의 개방적인 면에 있어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즉, 군집 2에 속한 사람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성생활과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이나 느낌을 좀처럼 드러내는 경우가 없고,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바가 없으며, 성관계를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은 성 의사소통 자체에서 철수해 있는 집단 혹은 성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방관자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수준은 낮은 반면, 긍정적·개방적 성태도를 취하고, 높은 수준의 성 주체성을 보였다. 이들은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배우자가 원하더라도 그에 응하는 일이 거의 없으나 자신이 성관계를 원할 때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집단으로 ‘자기중

심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의 수준은 낮은 반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에서만 높은 수준을 나타낸 집단이다. 즉, 부정적이며 보수적인 성태도를 취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성관계 요구를 하는 일도 거의 없지만,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할 때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잘 응하는 사람들로 ‘수동적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성 의사소통이 성적 자기노출, 긍정적·개방적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성, 성 주체성,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의 수준에 따라 명확한 특성을 가진 유형들로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성 의사소통 유형이 Brenton (1972)이 ‘Sex talk’에서 소개했던 유형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 의사소통 유형과 Brenton(1972)의 성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상호교류적 유형은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민감한 주제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renton (1972)의 문제에 직면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관자적 유형은 같은 이름으로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Brenton(1972)의 방관자적 형태와 동일하다. 또한 Brenton(1972)이 문제에 직면하는 형태와 방관자적 형태가 정반대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상호교류적 유형과 방관자적 유형이 개방적 성태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에서 서로 상반되는 수준을

갖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Brenton(1972)의 문체에 직면하는 형태와 방관자적 형태는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renton(1972)이 언급한 관습적인 형태와 독단적인 형태는 본 연구에서 다소 다른 특성을 갖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Brenton(1972)은 관습적인 형태를 피상적인 대화 형태로 사실에 관한 지엽적이고 일상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형태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의사소통에 참여는 하나 자신의 느낌, 생각,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동적 유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독단적인 형태는 성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공격적인 형태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 유형이나 방관자적 유형에 비해 적응적인 특성도 일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단적'이라는 표현을 다소 순화한 자기중심적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 의사소통 유형과 Brenton(1972)의 성 의사소통 유형을 비교했을 때, Brenton(1972)의 네 가지 성 의사소통 유형이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동적 유형과 자기중심적 유형이 Brenton(1972)이 제시한 개념과 다르게 명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성 의사소통에서 표현을 자제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기저에 있는 특성은 일치하고 있으며, Brenton(1972)의 설명처럼 두 유형이 서로 대조되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Brenton(1972)의 이론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성 의사소통의 유형들이 Brenton(1972)의 성 의사소통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성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의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결과는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사랑 요소 중 친밀감은 상호교류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열정과 책임감은 상호교류적 유형이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기중심적 유형과 수동적 유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방관자적 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생활의 질 요인인 성생활 만족도, 성행동, 성적 친밀감은 상호교류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중심적 유형과 수동적 유형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관자적 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생활과 사랑을 나타낸 집단은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았던 상호교류적 유형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성생활의 질과 사랑을 나타낸 집단은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았던 방관자적 유형이었다. 특히 방관자적 유형의 성생활의 질과 사랑이 가장 낮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형태라는 손영미(200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 요소 중 친밀감과 열정에서 성별과 성 의사소통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상호교류적 유형,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친밀감과 열정을 나타낸 반면, 수동적 유형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친밀감과 열정을 나타냈다. 수동적 유형은 성 의사소통 관련 변인 중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높은 특성을 보였던 집단으로,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할 때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특히 여성의 친밀감과 열정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관계에서 친밀감(intimacy)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O'Sullivan과 Allgeier(1998; Rosenfeld, 2004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여성은 방관자적 유형이 될 때 친밀감과 열정이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방관자적 유형이 되더라도 비교적 친밀감과 열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성 의사소통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할 때 친밀감과 열정을 못 느끼지만 남성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친밀감과 열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적 만족과 감정적 친밀감 간의 상호 관련성이 남편보다 부인에게 더 높았다는 Hunt(1974; 서선영,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성이 성 의사소통에서 철수되어 있을 경우 친밀감과 열정이 감소하여 일반적인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지만, 남성은 성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열정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성 의사소통에서 철수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인 부부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이 부부 관계에서 친밀감과 열정을 느끼는 데 있어 남성에게 비해 성 의사소통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호교류적 유형이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을 나타냈다. 즉, 성 의사소통에서 성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성태도가 긍정적·개방적이며, 성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성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적절히 합의하는 사람들은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성행동을 즐기며, 성적활동을 통해 배우자와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높은 수준의 친밀감, 열정, 책임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상호교류적 유형이 방관자적 유형, 자기중심적 유형, 수동적 유형과 특히 다른 점은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성적 자기노출과 성적 자기주장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관자적 유형이 가장 낮은 성생활의 질과 사랑을 나타냈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지도 않는 것은 성관계 및 부부 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 중에는 성 의사소통 유형과 성별에 따라 관계의 친밀감에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성 의사소통이 남녀 사이의 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감이란 본래 가까움, 유대감 등의 감정적 요소이며 (Sternberg, 1986), 성적 친밀감 또한 단순히 특정 성행동이라기보다 헌신과 조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Waring, Tillman, Frelick, Russell, & Weisz, 1980) 성행동에서 비롯되는 신뢰와 애

정, 즐거움, 기쁨 등을 포함한다(이희숙, 2008). 이러한 친밀감과 성 의사소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곧 성 의사소통이 성관계에서 단지 성행동이나 신체 생리적 요소와 관련된 부분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다루고 교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성 의사소통은 성관계에서의 갈등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막고,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측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남성은 상호교류적 유형과 자기중심적 유형이 전체 남성 중 각각 35%와 32.86%로 가장 많았고 방관자적 유형이 5%로 가장 적었던 반면, 여성은 수동적 유형이 전체 여성 중 36.77%로 가장 많았고 상호교류적 유형이 13.55%로 가장 적었다. 즉, 남성은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의견을 높은 수준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부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한 김영기, 한성열, 한민(2011)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전체 여성 중 84.4%로 폐쇄형보다 많았으며, 높은 수준의 감정을 노출하는 고정서형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86.3%로 저감정형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내용이 아닌 의사소통(nonsexual communication)과 성 의사소통이 성적 만족에 서로 독립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한 Byers와 Demmons(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이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등 의사소통

의 방식이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일반 의사소통의 유형과 다른 개념으로 보고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연령에 따른 성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를 탐색한 경우에는, 39세 이하 집단에서는 상호교류적 유형과 자기중심적 유형이 각각 25.68%와 3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관자적 유형이 14.75%로 가장 적었던 반면,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수동적 유형이 37.5%로 가장 많았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랑 요소 중 친밀감에서 결혼기간에 따라 주효과가 있었으나, 열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열정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열정은 감소하는 대신 친밀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열정은 차이가 없었으며, 친밀감은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가 더 높았다. 심미정(1999)은 성교 횟수는 일차적으로 아이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결혼연령이 어릴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증가한다는 James(1974)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삶의 주기에서 결혼 초기에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성생활에 만족스러움을 유지하다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사활동에 바쁜 일과로 성에 관심이 감소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 2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을 찾으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성교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부부간의 친밀도뿐만 아니라 성적인 만족도 더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혼기간에 따른 성행동과 열정 및 친밀감 등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

이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사랑 요소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로서, 단지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성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치료 장면에서 성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성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성 의사소통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 변인들이 실제로 기혼 남녀의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성 의사소통의 방법뿐만 아니라 성 의사소통에서 어떤 내용들이 표현되고 상호 교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다른 분야에 비해 성문제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심리학 영역에서 성문제 관련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성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 쌍이 아닌 개개인의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다 역동적이고 심층적인 성 의사소통의 측면들을 놓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한 성 의사소통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준거변

인들과 해당 척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실제 치료 장면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준거변인들 중에서 성 의사소통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성 의사소통 유형의 구분을 보다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표집 과정에서 최근의 만혼 증가 추세로 인해 20대 집단이 30, 40대 집단에 비하여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만혼으로 인해 연령이 높아도 결혼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평균 생존 기간의 증가로 인해 결혼 장기 집단도 전체적으로 많아진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 부부의 연령이나 결혼 기간 변인이 복잡해졌으며, 이에 ‘기혼 남녀’라는 표현의 대표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성에 대한 대화는 결혼 초기의 부부들에게서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의 성 의사소통이 미래의 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결혼 초기 또는 신혼기 부부들에 대한 성 의사소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기, 한성열, 한 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199-218.
- 김영애 (2004). 가족치료(핵심개념과 실제적용).

-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요완 (2007).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자, 이혜경 (1995).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 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35-53.
- 남영주 (2003).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 의미 유형과 결혼 만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영주, 옥선화, 김지애 (2006). 삼, 사십대 기혼 남녀의 성적 의사소통과 결혼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44(2), 113-126.
- 문홍세 (1989). 사랑, 성의 정신역동. 한국임상성학회지, 1(1), 23-30.
- 박경, 이희숙, 김선경, 고정애, 유춘자, 김혜경, 허정은 (2008). 성심리와 성건강.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소희 (2007). 기혼여성의 여가활용특성과 정서 표현성, 부부공감, 친밀감 및 여가공유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 김윤미 (1997). 임부의 성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1), 41-57.
- 서선영 (2001). 결혼 초기 부부관계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한기, 손영화 (2007).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75-196.
- 손영미 (2005).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미정 (1999). 중년여성의 성만족도와 관련요인 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233-243.
- 양미선 (2009). 자기불일치, 이상형과 실제 파트너의 일치 정도 및 관계의 질이 이성관계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명순 (2008).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 부부의사소통,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주 (2000). 현대 결혼과 가족. 서울: 신광출판사.
- 윤가현 (1993).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 이경옥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옥, 김영희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7), 39-58.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윤미 (2008). 성태도와 성행동이 기혼여성의 오르가슴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문정순 (2000). 기혼여성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생활 만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4(2), 396-414.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홍식, 김진학, 유계준, 이호영 (1987). 기혼남녀의 성기능장애 빈도. 대한의사협회지, 30(9), 1017-1023.
- 이희숙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순복 (1989).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여고생의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5), 659-667.
- 최명현 (2005).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enton, M. (1972). *Sex talk*. (이민섭 역.) NY: Stein and Day.
- Byers, E. S., &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2), 399-410.
- Catania, J. A., McDermott, L. J., & Wood, J. A. (1984). Assessment of locus of control: Situational specificity in the sexual contex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0(3), 310-324.
- Catania, J. A. (1992). Dyadic self regulation scale. In C. M. Davis(Eds.),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Thousand Oaks: Sage.
- Cupach, W. R., & Comstock, J. (1990). Satisfac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in marriage: Links to sexual satisfaction and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179-186.
- Davis, D., Shaver, P. R., Widaman, K. F., Vernon, M. L., Follette, W. C., & Beitz, K. (2006). "I can't get no satisfaction": Insecure attachment, inhibited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dis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3(4), 465-483.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 Dunn, K. M., Croft, P. R., & Hackett, G. I. (2000). Satisfaction in the sex life of a general population sampl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6(2), 141-151.
- Ferroni, P., & Taffe, J. (1997) Women's emotional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sexual needs. *Sexual and Marital Therapy*, 12(2), 127-138.
- Giddens, A. (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황정미, 배은경 역). 서울: 새물결.
- Greenberg, J. S., Bruess, C. E., & Conklin, S. C. (2007). *Exploring the dimensions of human sexuality*. Sudbury, MA: Jones & Bartlett Publishers.
- Hetherington, S. E., & Soeken, K. I. (1990). Measuring changes in intimacy and sexuality: A self-administered scale. *Journal of Sex Education & Therapy*, 16(3), 155-163.
- Hudson, W. W., & Murphy, G. J. (1990). *Sexual attitude scale*. FL: Walmyr Publishing Co.
- Hurlbert, D. F., & Whittaker, K. E. (1991). The role of masturbation in marital and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7(4), 272-282.
- Impett, E. A., Peplau, L. A., & Gable, S. L.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James, W. H. (1974). Marital Coital rates, spouse's ages, family siz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Sex Research*, 10(3), 205-218.
- Kurt, F., & Mahzad, H. (1998). Are love styles related to sexual styles? *The Journal of Sex*

- Research*, 35(3), 265-271.
- Libman, E., Spector, I., Binik, Y., Brender, W., & Fichten, C. (1983). Jewish general hospital (JGH) sexual self-monitoring form: Diary evaluation of sexual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C. M. Davis(Eds.),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CA: Sage Publications.
- MacNeil, S., & Byers, E. S.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6(4), 277-283.
- Massey, R. F. (1999). *The assessment of sexual intimacy: A validity stud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Tennessee. USA.
- Merves-Okin, L., Amidon, E., & Bernt, F. (1991) Perceptions of intimacy in marriage: Study of married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2), 110-118.
- Muehlenhard, C. L. (1995, 1996). The complexities of sexual consent. *Sexus Report*, 24(2), 4-7.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3), 234-243.
- Oattes, M. K., & Offman, A. (2007). Global self-esteem and sexual self-esteem as predictors of sexual communica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6(3/4), 89-100.
- Olson, D. H. (1975). Intimacy and the aging family, *Realities of aging*. College of Home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Patton, D., & Waring, E. M. (1985). Sex and marital intimac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1(3), 176-184.
- Ponzetti, J. J. Jr., Zvonkovic, A. M., Cate, R. M., & Huston, T. L. (1992). Reasons for divorce: A comparison between former partner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3/4), 183-201.
- Prager, K. J. (1995). *The psychology of intimacy*. New York and London: The Guilford Press.
- Purnine, D. M., & Carey, M. P. (199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exual adjustment: The roles of understanding and agre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6), 1017-1025.
- Rabin, C. (1998). Gender and intimacy in the treatment of couples in the 1990s. *Sexual and Marital Therapy*, 13(2), 179-190.
- Rosenfeld, S. M. (2004). *Psychosocial correlates of sexual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USA.
- Schnarch, D. M. (1997). Passionate marriage: How couples behave in bed is a remarkably authentic expression of their emotional connection-or lack of it. *Family Therapy Networker*, 21(5), 42-49.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 the Family*, 41(4), 813-823.
- Sprecher, S., & Regan, P. C. (2000). *Close relationships: A sourcebook*.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Vener, A. M., & Stewart, C. S. (1974). Adolescent sexual behavior in middle America revisited: 1970-1973.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4), 728-735.
- Waring, E. M., Tillman, M. P., Frelick, L., Russell, L., & Weisz, G. (1980). Concepts of intimacy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8), 471-474.
- Wheless, L. R., Wheless, V. E., & Baus, R. (1984). Sexu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solidarity i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intimate relationships. *Th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8(3), 217-230.
- Zhou, M. (1993). A survey of sexual states of married, healthy, reproductive age women. *The Journal of Personal & Human Sexuality*, 6(2), 15-28.

1 차원고접수 : 2012. 10. 28.

심사통과접수 : 2012. 12. 13.

최종원고접수 : 2012. 12. 24.

## **The Influences of Sexual Communication Style on Quality of Sex Life and Components of Love among Married Men and Women**

**Keum-Ryung Byun<sup>1)</sup>**

**Young-Ho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lassify married people's sexual communication style,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each sexual communication style on quality of sex life and components of love,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quality of sex life and components of love according to sexual communication sty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arriage and sex life-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questionnaire from 295 married men and women aged from 20s to 40s of Seoul, Kyong-ki, and In-cheon, Korea.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e Measure of Sexual Self-Disclosure,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SFI), Sexual Attitude Scale, Sexual Assertiveness Scale, Dyadic Sexual Regulation Scale, Likelihood of Consenting to Unwanted Sex, Jewish General Hospital(JGH) Sexual Self-Monitoring Form, Sexual Intimacy Scale, and The Sternberg Triangular Love Scale.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two-way ANOVA.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exual communication style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reciprocal style, speculative style, self-centered style, passive style. Reciprocal style represented the highest levels of quality of sex life and love among four sexual communication styles. On the other hand, Speculative style represented the lowest levels of quality of sex life and love among four sexual communication sty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entered style and passive style according to the levels of Sexual Attitude, Consenting to Unwanted Sex, and Sexual Regulation. Quality of sex life and love has significant differences on sex, age, and period of marriage.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communication style, sexual satisfaction, sexual behavior, sexual intimacy, components of love